



영화속 '전기'



이진주 기자
한국전기신문사

얼마 전, 친구와 만나 마땅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

고민하지 않고 가장 많은 상영관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보기로 했다.

양손 가득 주전부리를 들고 자리를 찾아앉자, 곧 영화가 시작했다.

전기신문 기자이기 때문일까...

스파이더맨의 화려한 액션에 열광하는 친구와 달리 기자는 상영 내내 악당으로 등장하는 '일렉트로'에 관심이 갔다.

전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 하나로 도시를 한 순간에 암흑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데서 흥미로웠다. 전기가 사라졌을 때의 혼란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본 것 같아 전기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기회도 됐다.

'일렉트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오스코프사의 엔지니어인 맥스로 관심병을 가진 일반 시민이면서 스파이더맨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다.

뉴욕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해결하던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설계를 훔쳐주면서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자 맥스는 스파이더맨이 자신을 기억해주었다며 광적으로 흥분하게 된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맥스는 생일에도 제때 퇴근하지 못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다가 연구 중이던 전기뱀장어 수족관에 빠져 죽게 된다.



회사 안에서는 비밀리에 시체를 보관하고, 그 날 저녁 맥스는 찌릿찌릿 전기를 일으키면서 눈을 뜬다. 일렉트로의 탄생이었다.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뉴욕이 정전되면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함, 정전에 따른 열차사고의 위험성, 도시 배전시스템의 중요함 등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각종 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스파이더맨에 의해 소멸되지만, '과부하'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전기의 관리 및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고나 할까?!

“일렉트로를 통해 전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다”

영화가 끝난 뒤 기자가 친구에게 밝힌 소감은 딱 한 문장이었다.

“전기신문 기자 티내느냐”는 친구의 핀잔은 영화 관람 후 커피를 한잔 할 때까지도 이어졌지만...

영화가 끝난 뒤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원작만화를 찾아봤다.

만화에는 단순히 전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도의 묘사에 그쳐있었다.

영화에서처럼 도시의 전력배전구조가 드러나거나 정전에 따른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제시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추가된 듯 보였다.

물론 영화제작사에서 '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영화를 소개하거나 해당 영화를 관람하기를 추천하려고 쓰는 글은 아니다. '전기신문 기자'라는 것을 티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142분이라는 상영시간 중 5분 가량에 불과했던 장면에서 새삼스러운 느낌을 받아 신기했을 뿐이다.

혹시 이 영화를 본 독자들 중에 기자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 특정 영화에 대한 홍보 글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렉트로'를 제외한 다른 인물이나 스토리에서는 별 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힙니다.

